

4·11 총선 5대 이슈

③ '젊은 DJ' 키우자

“3선·4선 국회의원들 존재감이 없다”

‘젊은 DJ(김대중 전 대통령)’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민심에 자리 잡고 있는 ‘화두’다.

4월 총선에서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과 비전을 갖춘 인물을 선출, 국회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민심의 흐름은 DJ 이후, 지역 정치권이 보여 왔던 안이함과 무기력에서 출발하고 있다.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리더십과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분열과 반목을 거듭하며 정치권의 종속 변수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역 민심은 3선 이상의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해 ‘10년 이상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종전과 같은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과감한 ‘도전과 응전’ 보다는 오히려 좌고우면하며 정치적으로 안주하지 않았느냐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조제천 의원들에 대해서도

차세대 당권·대권주자 찾아보기 힘들어

지역유권자들 정치비전 갖춘 새인물 요구

미래를 기약할 만한 ‘정치적 비전’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역 정치권에서는 차기 대선 주자는 물론 민주당 통합 당의 차세대 당권 주자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 인권의 중심축이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탄생의 주역이었던 광주·전남 민심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고 있다.

이에 따라, 4월 총선을 계기로 지역 정치권의 위기와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몰락이 여론의 확산과 함께 새로운 리더십과 비전으로 무장한 ‘젊은 DJ’를 키워야 한

다는 것이다.

과거 DJ가 암울했던 군사정권 시절, 과감한 도전과 비전 제시로

정치권의 중심에 섰을 때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도전 정신을 가진 인물들을 국회로 진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래의 희망을 견인할 ‘젊은 DJ’의 발굴은 지역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우선돼야 한다. 당장, 젊은 DJ들의 적극적인 도전을 담보할 ‘개인의 법칙’이 도입될 수 있는 강력한 여론 형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록권을 최소화,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후보자의 화려한 이력보다는 현장을 바탕으로 한 진정성 있는 비전을 평가할 수 있는 지역 유권자의 냉정한 판단도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젊은 DJ들의 ‘도전’은 현역 국회의원들의 ‘응전’을 부른다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의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호남의 인구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강력한 ‘도전과 응전’의 선순환은 지역 정치권이 피해야 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호남지역 국회의원은 31명(광주 8, 전남 12, 전북 11)에 불과한 반면, 영남지역 국회의원 68명(부산18, 대구 12, 울산 6, 경북 15, 경남 17)이나 된다”며 “이는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출판기념회’ 뜨거운 주말

12일부터 불법

마지막 주말·휴일

후보 10여명 몰려



현행 공직선거법상 출판기념회 등이 제한되는 날씨가 임박하면서 4·11 총선 출마자들의 출판기념회가 이번 주말과 휴일을 정점으로 붐몰을 이루고 있다.

5일 광주시 선관위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90일 전(1월12일)부터는 후보자의 출판기념회가 전면 금지된다.

이번 4·11총선의 경우 후보자들의 출판기념회는 오는 11일 이후 전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과 휴일을 전후로 막바지 출판기념회가 집중적으로 열린다.

민주당 송갑석 광주 서구 갑 예비후보는 주말인 오는 7일 오후 3시 5-18기분문화센터 민주홀에서 자신의 저서 ‘무등산 역사길에 내게로 왔다’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무등산 역사길 체험을 바탕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내용을 적었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서구를 예비후보로 7일 오후 1시 광주 서구 치평중학교 체육강당에서 ‘오병윤 희망의 진보정치’ 출판기념회를 연다. 오 후보는 저서를 통해 자신이 광범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된 배경과 정치인생 역경 속에 얻은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 통합당 채일병 광주 서구 을 예비후보도 7일 오후 3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길가의 질경이와 쉬지 않는 마중물’ 출판기념회를 가질 예정이다. 채 후보는 공직생활과 국회의원을 거치는 과정에서 시련과 역경을 이겨낸 심경을 자전적 에세이 형태로 펴냈다.

또한, 민주당 통합당 임현모 광주 북구 갑 예비후보도 7일 오후 2시 광주 북구 서신고 체육관에서 저서 ‘차 한잔의 대화’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민주당 통합당 최경환 광주 북구 을 예비후보도 같은 날 전남대 강당에서 자전 에세이 ‘배움의 시간’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휴일인 8일에도 출판기념회는 이어진다. 통합진보당 이재언 북구 갑 예비후보는 8일 전남대 웅봉문화관 4층 세미나실에서 ‘이재언 세상 바라

보기’ 출판기념회를 연다.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인 이 예비후보는 지난 10년간 교수신문, 전대신문, 한겨레, 월간 말 등 언론매체에 기고한 글을 모아 책으로 엮었다.

민주당 통합당 이석형 영광·영광·장성 예비후보도 같은 날 오후 2시 장성 흥길동 체육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전 군수는 ‘내 부모 모시듯 내 아이 키우듯’이라는 제목으로 간간하는 책에 지난 2년 동안 전국 순회 강연을 통해 느낀 소회와 이 후보의 진솔한 삶, 최고 행정가로서의 열정과 노력,

꿈을 담았다. 이와 함께 민주당 통합당 이상갑 광주 서구 을 예비후보는 오는 9일 오후 7시 서구 문화센터에서 ‘이번은 있다’ 출판기념회를, 박주선 의원은 오는 10일 오후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정의’ 출판기념회를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11일에는 민주당 통합당 윤재갑 해남·완도·진도 예비후보가 오후 2시 해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시련은 용기를 넣고 바다는 희망을 키운다’ 출판기념회를 열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소통 공감, 20리 민심탐방·카페 사무실·프리허그...

4·11 총선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의 이색 선거운동이 유권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광주·전남이 텃밭인 민주당 통합당이 완전 개방형 국민경선제로 후보를 공천하기로 함에 따라 신인 정치인들이 이름과 얼굴을 알리기 위해 ‘20리 민심 탐방’ ‘카페 선거사무실’ ‘프리허그’ 등 다채로운 이색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새해초부터 ‘소통’이 정치권 화두로 부각되면서 주민과의 접촉을 강화하거나 주민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캠페인 등을 펼쳐며 표판을 다지고 있다.

광주 북구 갑에 출사표를 던진 이형석 전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은 매일 8km를 걷는 ‘이형석의 20리 민심 탐방’을 지속하면서 주민들의 애환을 경청하고 있다. 이 후보는 “권위주의적 정치보다는 주민과 함께하

총선에비후보들 “튀어야 산다” 아이디어 총동원...얼굴 알리기

는 정치인을 요구하는 시대가 됐다”며 주민과의 접촉을 강화하는 선거운동을 선거일까지 지속할 방침이다.

서구 갑에 출마한 송갑석 전 전남대총학생회장도 자신의 부인과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찍은 사진을 대형 플래카드로 제작해, 선거사무실 외벽에 내걸었다. 송 후보는 “선거사무실이 여성 유권자들이 많이 찾는 서구 광천동 대형 유통업체 앞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여성(女心)을 자극하고, 학생 운동권 출신이라는 ‘강

성 이미지’를 ‘부드러운 이미지’로 바꿔보기 위한 전략”이라고 밝혔다.

북구 갑에 출마하는 김경진 변호사는 선거사무실을 카페 식으로 꾸몄다. 딱딱한 선거사무실 ‘주민 사랑방’ 형태로 바뀌 주민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서구 을에 출사표를 던진 김이강 예비후보는 “공감이 안 되는 현 정치를 뒤엎고 새 정치 문화, 소통의 정치를 실현해 보겠다”며 광주 총장로에서 시민과 자연스럽게 포용

하는 ‘프리 허그 이벤트’를 전개하고 있다.

광산 갑에 출마한 전갑길 전 국회의원도 최근 출판기념회에서 개량한복 차림에 지게를 짊어진 채 입장해 눈길을 모았다. 농촌이 대부분인 선거구 특성을 고려해 “농민과 함께하는 후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이벤트였다.

북구 을에 출마하는 최경환 전 김대중 대통령 비서관은 선거사무소에서 수시로 주민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경로당과 노래교실을 찾아 직접 노래도 함께 부른다.

정치권 관계자는 “일반 시민에게 공천권을 부여하니까 과거 조직 위주의 선거운동 방식에서 탈피해 후보가 직접 주민과 만나고 있다”며 “주민이 제대로 평가할 좋은 기회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한치 앞을 모르겠음

‘공황장애’ 한방(韓方)으로 치료!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10726-홍-9061호

자연과 몸을 하나로 만드는

경희한의원

사람들은 항상 성공을 향해 바쁘게 달립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과 결과가 맞지 않으면 못된다고 속이 상해하고 병까지 얻습니다. 이젠 목표를 조금만 낮춰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안한 삶이며 병을 얻지 않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진료가 아닌 환자의 마음을 살피고 어루만지는 가족주의 치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료 과목: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소아과, 침구과

진료 안내: • 환병 / 스트레스 질환

- 불안, 초조, 가슴떨림
- 상열감, 안면홍조, 갱년기 장애
- 신경성 두통, 불면증, 우울증
- 수험생 집중력 저하

진료 시간: 평 일 : 오전 9:30~12:30 / 오후 2:00~6:30
토요일 : 오후 4시까지 진료 공휴일/일요일 : 휴진

진료 문의: TEL 062)365-1541
광주 서구 화정동 추신회관 건너편

침 · 뜰 · 부항은 한의사에게! 한약은 한의원에서!



공황장애(恐慌障礙)를 글자대로 풀이하면 공포감에 당황하는 증상이라는 뜻이다. 마치 어린 새가 동우리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환경에 무섭고 당황해 하는 것처럼 그런 증상이 우리 몸에 일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를테면, 짐의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심장이 뛰고 숨이 막힐 듯하면서 어지러움과 식은땀을 흘리고 손발이 차가워 마비될 것 같은 감각을 느낀다. 동시에 무슨 응급상황이 신체 내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심장이 곧 맞아서 죽든지 아니면 뇌졸중으로 쓰러질 것만 같고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는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즉시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달려 가게 만든다. 그리고 병원에서 모든 검사를 해보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것이 공황발작을 겪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내용이다. 공황장애가 어떤 원인으로 인해 생기는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공황장애의 가장 중요한 발병 원인은 신체적인데 있다는 주장에 많은 신경의들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 즉 뇌의 어떤 생화학적 기능장애 때문에 이 병이 생기는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어떤 학자들은 위험을 탐색하는 대뇌기능이 지나치게 항진되어 온다고 주장하고 또다른 학자들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정보기능이 너무 예민해진 탓이라고 주장한다. 현재로서는 공황장애는 유전적인 요인, 체질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및 정신적인 요인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방에서는 심담기허(心膽氣虛)와 간기울결(肝氣鬱結)을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심비양해(心脾兩虛), 심신불고(心腎不交), 위중화해(胃中不和) 등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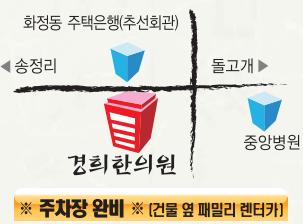
- 1)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거나 심정박동이 빨리
2) 땀을 흘림
3) 손, 발 혹은 몸이 떨림
4) 호흡이 가빠지거나 숨이 막히는 느낌
5) 흉통 또는 흉부 압박감
6) 질식할 것 같은 느낌(목이 놀리거나 졸리는 감각)
7) 메스꺼움 또는 복부 불편감
8) 자제력을 잃거나 미칠 것 같은 두려움
9) 비현실감 또는 이인증

- 10) 죽을 것 같은 두려움
11) 오한 또는 열감을 느낌
12) 어지러움과 쓰러질 것 같은 느낌
(어지러움, 불안정감, 머리 멍한 또는 졸도)
13) 감각이상(손발이 저리거나 마비되는 느낌)

하느나 하는 것은 상당한 임상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또 공황장애가 여러 다른 신체 및 정신장애와 동시에 이행(罹患)되어있는 경우 공황장애의 합병증으로 공포증, 예기불안, 약물 또는 알코올 남용, 우울증 등으로 복잡한 양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치료는 포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공황장애에 대한 치료가 늦어져서 이미 공포증이 매우 심해진 환자들에게는 약물치료 외에도 병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고, 환자들이 오해하거나 잘못 믿고 있는 여러가지 편견들을 바로 잡아주는 인지적 치료와 공포의 대상이 되는 장소나 상황에 불안감 없이 접근



주자장 연비 \*간을 담뿍먹라 멘타기